

세상에 없던 새로운 공부법

EBS 중학

뉴런



국어 2

 무료 강의 제공

개념책

+

실전책

+

미니북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

학습 목표

-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으로 형상화할 수 있다.
- 운율, 반어, 역설, 풍자의 효과를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더 알아 두기

✦ 운율의 종류

내재율	외형률
걸으며 드러나지 않고, 시 속에 잠재적으로 숨어 있는 운율	음수나 음보 등의 규칙적 반복에 의하여 생기는 운율



일반적으로 음수나 음보의 반복 외의 음운이나 단어, 문장 구조의 반복 등은 내재율에 포함함.

✦ 수미 상관

- 뜻: 시의 처음과 마지막을 같거나 비슷하게 반복하는 표현 방법
- 효과
 - 음악적인 느낌을 줌.
 - 중요한 내용을 강조함.
 - 구조적 안정감을 형성함.

1 운율

(1) 운율의 뜻: 시에서 느껴지는 말의 가락으로, 시의 특정 요소가 반복되면서 형성된다.

(2) 운율 형성의 방법

운율 형성 방법	예	해설
동일한 음운, 음절, 시어의 반복	갈래갈래 갈린 길 / 길이라도	음운 'ㄱ'과 'ㄹ'의 반복, '갈/갈'의 반복 등을 통해 운율이 형성됨.
동일한 음보의 반복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각 행을 3개로 끊어 읽는 3음보의 반복을 통해 운율이 형성됨.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는 ~같이'라는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이 형성됨.
수미 상관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중략>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시의 첫 행과 마지막 행의 반복을 통해 운율이 형성됨.

2 반어

(1) 반어의 뜻: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반대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2) 반어적 표현의 방법

예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말하고자 하는 내용	시에서 표현된 내용	효과
임이 떠나면 몹시 슬플 것이다.	죽어도 울지 않겠다(슬퍼하지 않겠다.).	임과의 이별을 슬퍼하는 마음을 강조하여 표현함.

(3) 반어적 표현의 효과: 화자의 상황이나 심리를 보다 인상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예로 개념 확인

『한 줄의 시는커녕 』: ①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②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움 곳곳이 견디며
이 묘비는 살아 남아
③귀중한 사료가 될 것이니
④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 김광규, ⑤「묘비명」

〈작품 해설〉 이 작품은 물질적 가치가 정신적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시와 소설보다는 돈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 존경을 받고, 문인들은 그들을 위해 거짓된 묘비명을 남겨야 하는 현대 사회의 왜곡된 모습을 비판하면서 시인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시이다.

3 역설

(1) 역설의 뜻: 표면적으로는 단어 간의 관계가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이다.

(2) 역설적 표현의 방법

예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 없는	↔	아우성
아무런 소리가 없는 조용한 상태	모순	떠들썩하게 기세를 올려 지르는 소리
↓		
표면적	'소리 없는'과 '아우성'은 함께 쓰일 수 없는 모순 관계임.	
작가 의도	바람에 날아가고 싶지만 깃대에 묶여 펄럭이기만 하는 깃발의 모습을 표현함. → 이상 세계를 동경하지만 도달하지 못하는 운명적 한계를 강조함.	

(3) 역설적 표현의 효과: 단어들의 낯선 결합을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면서 의미를 강조한다.

4 풍자

(1) 풍자의 뜻: 개인의 어리석음이나 사회의 부조리 등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며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이다.

(2) 풍자적 표현의 방법

예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건넌산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있거늘 가슴이 꿈쩍하여 풀쩍 뛰어 내달다가 두엄 아래에 자빠졌구나 모쳐라 날랜 나이니 망정이지 어혈 질 뻔했구나	→	'파리'-'두꺼비'-'백송골'의 관계를 통해 백성을 괴롭히던 관리들의 횡포를 간접적으로 비 판함.
---	---	---	---

(3) 풍자적 표현의 효과

- 우회적인 방법으로 부정적인 대상을 조롱하거나 비판할 수 있다.
-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며 읽는 재미를 더해 준다.

더 알아 두기

✦ 모순(矛盾)의 어원

矛 - 창 모 / 盾 - 방패 순

중국 초나라에 창과 방패를 파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창을 팔 때에는 "이 창은 어떤 방패라도 뚫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으며, 방패를 팔 때에는 "이 방패는 어떤 창으로도 뚫을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의 창으로 당신의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오?"라고 질문을 하였다. 장사꾼은 이 질문에 아무런 대꾸도 못하였다.

✦ 풍자와 해학

- 공통점
 -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함.
 - 독자의 웃음을 유발함.
- 차이점

풍자	해학
- 비판적 웃음 - 대상에 대한 공격적 태도가 드러남.	- 동정적 웃음 - 대상에 대한 연민과 공감의 태도가 드러남.

①, ④ 운율: 이 시에서는 글자 수나 음보, 혹은 단어나 구절과 같이 눈에 띄는 요소의 반복이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행 단위로 끊어가며 시를 읽다 보면 산문을 읽을 때와는 다른 리듬감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시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운율을 형성하기도 한다. 또한 시의 마지막 부분인 ④에서는 비슷한 구조의 행을 반복하면서 음악적인 느낌을 느끼게 하고 있다.

②, ③ 반어: 이 시의 '그'는 한평생 시나 소설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돈과 명예만을 추구하면서 살아온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과연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는 시인이 비판하고자 하는 '속물적인 사람'이며 시인은 시를 통해 '그'처럼 살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의 삶 역시 '귀중한 사료'가 될 만한 가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결국 이 시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반대로 이야기하는 '반어'가 사용된 시인 것이다.

⑤ 풍자: 이 시는 문학이나 예술, 철학, 인문학과 같은 정신적 가치보다는 돈이나 권력과 같은 물질적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문학적 양심을 지켜야 하는 문인들마저 속물적으로 변해 가는 현대 사회를 비판한 시이다. 시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의 '묘비명'이라는 소재를 이용해 우회적으로 전달하는 풍자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풍자의 방법을 사용하면 직접적으로 말을 전달할 때보다 더 인상적으로 내용을 기억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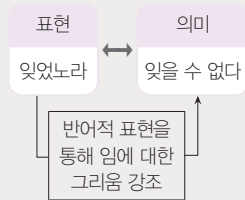


1번 후일 | 김소월

- **해제:** 이 작품은 떠나간 임에 대한 그리운 심정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시이다. 먼 훗날 '당신'이 찾으면 그때에 '있었노라'라고 말하겠다고 반복함으로써 오히려 임을 결코 잊을 수 없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주제:** 떠난 임에 대한 그리움

내용 연구

이 시의 반어적 표현



구절 풀이

-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가정하고 있다.
- 그때에 내 말이 있었노라: 당신을 잊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당신을 잊을 수 없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오늘도 어제도 당신을 잊지 못하여 그리워한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낱말 풀이

- * 나무라면: 잘못을 꾸짖어 알아듣도록 말하면.

-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 3음보의 율격
- 그때에[▽] 내 말이[▽] 있었노라[▽]

▶ 당신과 만날 때 의 반응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있었노라'
부재하는 당신에 대한 그리움(화자의 정서)

▶ 당신이 나무랄 때 '나'의 반응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있었노라'

▶ 당신의 계속되는 에 대한 '나'의 반응

-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 먼 훗날[▽] 그때에[▽] 있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당신을 그리워함.

▶ 당신을 잊지 못하는 '나'의 애절한

01 ★중요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나’와 ‘당신’의 추억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당신’에 대한 ‘나’의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단정적인 어조로 임과의 이별에 대한 ‘나’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02 ★중요 이 시에 두드러진 표현 방식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 ① 고향으로 돌아가자,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 ② 너를 남기고 온 /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 ③ 꽃이 피네 / 꽃이 피네 / 갈 봄 여름 없이 / 꽃이 피네.
- ④ 아니야 아니야 서럽지 않다. / 배앓이를 하던 날
납작 엎드렸던 / 아랫목이 차디찬 물살에 갇힌다
해도
- ⑤ 한 줄의 시는커녕 /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 많은 돈을
벌었고 / 높은 자리에 올라 / 이처럼 훌륭한 비석
을 남겼다.

0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마음을 따옴표로 표현하여 고백적 느낌을 주고 있다.
- ② ‘나’의 감정을 ‘당신’에 의탁하여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나’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내 강조하고 있다.
- ④ 이별의 슬픔을 과장되게 표현하여 임과의 이별을 해학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당신’에 대한 그리움과 ‘나’의 처지로 인한 체념이라는 모순된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04 ㉡을 ‘나’가 ‘당신’에게 직접 하는 솔직한 말로 바꿀 때 적절한 것은?

- ① 하루하루 열심히 살게요.
- ② 절대 당신을 잊을 수 없어요.
- ③ 당신을 만난 것이 후회되네요.
- ④ 내 걱정은 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 ⑤ 언젠가는 잊을 수 있을 테니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05 <보기>에 제시된 설명을 참고하여, 이 시의 1연을 끊어 읽기 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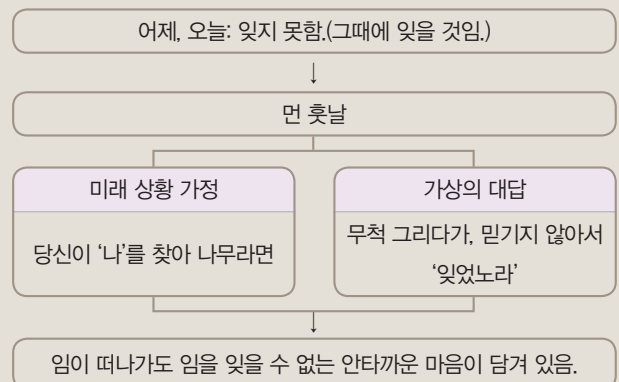
◀ 보기 ▶

김소월은 여성적 어조와 민요적 율조로 작품을 표현한 작가이다.

100점 특강 Special lecture

이 시의 화자의 의도

이 시의 화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상황을 ‘~면’이라고 가정하면서 먼 훗날 임이 찾아와 자신을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라고 말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도 어제도 아니고’ ‘먼 훗날 그때’이다. 즉, 잊었다는 화자의 가상의 말 속에는 사실은 떠나간 임을 잊을 수 없다는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 있으며, 이를 반어적으로 표현하여 강조하고 있다.



- **해제:** 이 글은 글쓴이가 '인디언들과의 만남'이라는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침묵'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수필이다. 역설적 표현을 통해 침묵으로 상대방의 참모습을 아는 것을 중요시하는 인디언의 문화를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주제:** 침묵의 진정한 가치

내용 연구

인디언들과의 만남 전후의 글쓴이의 변화

전	대화를 통해서만 상대방을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함.
↓	
후	마음속에서 우려나오는 침묵을 통해 상대방의 존재를 잘 느낄 수 있음을 깨달음.

구절 풀이

- 나는 글을 쓰는 ~ 내비쳤다:
인디언 노인과 인디언 세계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자신이 인디언 문화에 대해 많이 알고 있으며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 몇 번의 여행을 ~ '너무 많이 말해'었다.: 인디언들은 그 사람의 특징을 이름으로 부르는 데, '나'의 인디언식 이름은 인디언들이 보기에 '나'가 평소 말에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모국어'와 '침묵'이라는 모순된 두 표현을 같이 사용해 침묵으로 상대방의 참모습을 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디언의 가치와 문화를 드러내고 있다.

날말 풀이

- * 침묵: 아무 말도 없이 잠잠함. 또는 그런 상태.
- * 오산: 추측이나 예상을 잘못함. 또는 그런 추측이나 예상.
- * 모국어: 자기 나라의 말. 주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이 고국의 말을 이를 때에 쓴다.

(가) 처음으로 인디언들의 세계를 만났을 때 일이 떠오른다. <중략> 인디언 노인들과 흥미 있는 대화를 주고받으리라 기대했던 나는 아주 뜻밖의 일을 경험했다. 천막 안으로 들어가 그들과 마주앉자마자 나는 내 소개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글을 쓰는 작가이며, 인디언 세계에 무척 관심이 많고, 잘 부탁한다는 말까지 잊지 않았다. 인디언들의 철학과 역사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도 넌지시 내비쳤다. /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허리를 꼴꼴이 세우고 묵묵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천막 안이 어슴푸레해서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는 건지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도 알 수 없었다.

▶ 인디언들과의 만남에서 뜻밖의 일을 경험함.

(나) 훗날에야 나는 그것이 인디언 부족들의 전통인 것을 알았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들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한동안 침묵으로 상대방을 느끼는 것이다.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가장 잘 느끼는 방법은 말을 통한 것이 아니라 * 침묵을 통한 것임을 그들은 깨닫고 있었다.

▶ 을/를 통해 상대방의 존재를 느끼는 인디언들

(다) 그 후 미국에서 돌아와 나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인디언들 흉내를 내고는 했다. 상대방의 존재를 느낀답시고 입을 다물고 오 분이고 십 분이고 앉아 있었다. 그 결과 아주 괴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게 되었다. 침묵은 흉내가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임을 미처 몰랐던 것이다.

▶ 존재의 에서 저절로 나오는 침묵

(라) * 몇 번의 여행을 인디언들과 함께 보내면서 나는 그들로부터 두 개의 인디언식 이름을 얻었다. / 하나는 '너무 많이 말해'었다. <중략> 그렇다. 고백하지만 나는 그들의 침묵에는 턱없이 모자랐고, 그들의 말에는 더없이 넘쳐났다. 나는 이 생에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지 않은가.

▶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 과거에 대한 성찰

(마) 내가 얻은 또 하나의 이름은 '너무 많이 물어봐'었다. 인디언들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히 나는 눈만 뜨면 질문을 퍼부어 대기 시작했다. <중략> 하지만 인디언들은 기준이 달랐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몇 가지를 묻고 답을 들어서 그 사람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큰 * 오산이라고 했다. 사람이든 장소든 대상을 깊이 이해하려면 묵묵히 오래 만나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 인디언식 이름에서 얻은 깨달음

(바) 인디언들은 부족도 다르고 언어도 많이 다르다. 그래서 나는 인디언을 만나면 그들의 부족 언어를 묻곤 했다.

“당신의 * 모국어는 뭘니까?”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답하곤 했다.

①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역설적 표현

▶ 침묵을 자신들의 (이)라 답하는 인디언들

01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러 개의 일화를 나열하고 있다.
- ② 글쓴이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③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며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글쓴이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중요

02 글쓴이가 인디언들과의 만남에서 깨달은 점이 아닌 것은?

- ① 상대방의 존재를 느끼기에는 말보다 침묵이 효과적이다.
- ② 말을 하지 않고 상대방을 느끼려는 행동을 모두 침묵이라고 할 수 없다.
- ③ 대상에 대한 이해는 질문과 대답보다는 만남을 통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
- ④ 침묵은 연습이나 흥재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나오는 것이다.
- ⑤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대화는 불필요한 것이며, 침묵으로 모든 것을 전달할 수 있다.

03 ①과 같은 표현 방법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 ①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 ② 두 볼에 흐르는 빛이 /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 ③ 괴로웠던 사나이, /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 처럼
- ④ 당신은 흠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 ⑤ 은행나무 열매에서 구린내가 난다 / 주의해 주세요 구린내가 향기롭다

서술형

04 다음은 이 글을 제재로 한 수업의 일부이다. 학생의 대답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선생님: 이 글을 읽어 보면 인디언 노인들을 만난 ‘나’가 당황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학생: _____

조건

• ‘나’의 기대와 당황한 이유를 한 문장으로 쓸 것.

100점 특강 Special lecture**○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

글쓴이는 ‘인디언들과의 만남’이라는 경험을 통해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고 있다. 수필은 이처럼 의미 있는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솔직히 고백하기에 적합한 글이다.

경험	깨달음
인디언 천막 안에서 침묵하는 인디언들을 봄.	상대를 느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이 아닌 침묵임.
인디언들의 흥재를 내다가 좋지 않은 평을 들음.	침묵은 흥재가 아니라 마음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임.
인디언들에게 두 가지 인디언식 이름을 얻음.	평소에 쓸데없는 말과 질문이 많았음.

○ 제목에 드러난 역설적 표현

‘역설’이란 겉으로 볼 때에는 서로 모순이지만, 그 안에 진리와 가치를 담고 있는 표현을 말한다. ‘모국어’는 ‘자기 나라의 말’을, ‘침묵’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국어가 침묵’이라는 표현은 겉으로 볼 때 모순된 표현이다. 이는 말하는 것보다 침묵으로 상대방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디언들의 가치와 문화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이다.

나의 모국어는 침묵		
↓		
표면적 표현	역설적 표현	글쓴이의 의도
‘모국어가 침묵’이라는 표현은 모순임.		침묵을 중요시하는 인디언들의 문화를 보여 줌.

- **해제:** 이 시는 '나'가 관찰한 '너'의 좋은 모습을 바보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하면서, 그런 너를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작품이다. '너'의 다양한 모습을 제시하여 '너'가 좋은 사람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 **주제:** 착하고 따뜻한 '너'를 좋아함.

내용 연구

이 시의 사상 전개

1연	바보 같은 '너'
↓	
2연	바보 같은 '너'를 좋아하는 '나'

구절 풀이

- **너는 참 바보다.**: '나'의 눈에 비친 '너'는 규칙을 잘 지키고, 예의가 바르고, 작고 사소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이 따뜻하고 너그러운 사람이다. 그런 '너'의 좋은 모습을 보고 '바보'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너'가 좋은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다.

낱말 풀이

- * **턱**: 침이나 입 안에 든 것을 뱉는 소리. 또는 그 모양.
- * **개구멍**: 담이나 울타리 또는 대문의 밑에 개 따위가 드나들 정도로 터진 작은 구멍.
- * **허풍**: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장하여 믿음성이 없는 말이나 행동.
- * **씩**: 소리 없이 싱겁게 얼핏 한 번 웃는 모양.

씹던 껌을 아무 데나 ^{의정어} ***뵈**, 뱉지 못하고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으로 달려가는

• **너는 참 바보다.** ■: 같거나 비슷한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함.

^{반어적 표현} ***개구멍으로** ^{의태어} **쑥 빠져**나가면 금방일 것을

비잉 돌아 ^{의태어} **교문으로** 다니는

^{지적 허풍, 의태어} **너는 참 바보다.**

너는 참 바보다.

얼굴에 검댕칠을 한 연탄장수 아저씨한테

쓸데없이 ^{의태어} **꾸벅**, 인사하는

너는 참 바보다.

호랑이 선생님이 전근 가신다고

아무도 흘리지 않는 눈물을 찔끔거리는

너는 참 바보다.

그까짓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민들레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 바라보는

너는 참 바보다.

내가 아무리 거짓으로 ^{*}허풍을 떨어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머리를 **끄덕여** 주는

너는 참 바보다.

바보라고 불리도 화내지 않고

^{*} **씩** 웃어 버리고 마는 **너는**

^{의태어}

정말 정말 바보다.

'너는 참 바보다.'를 변형하여 '너'가 좋은 사람임을 강조함.

-그럼, 난 뭐냐?

그런 네가 좋아서 그림자처럼

네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나는?

▶ 바보 같은 '너'의 모습 ① - 규칙을 잘 지키는 '너'

▶ 바보 같은 '너'의 모습 ② - 예의 바른 '너'

▶ 바보 같은 '너'의 모습 ③ - 따뜻한 마음을 지닌 '너'

▶ 바보 같은 '너'의 모습 ④ - 작고 것을 소중히 여기는 '너'

▶ 바보 같은 '너'의 모습 ⑤ - 마음이 넓은 '너'

▶ 같은 '너'를 좋아하는

01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답답한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대상의 부정적인 속성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③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라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 ⑤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으며 자기 고백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02 이 시의 제목에 사용된 발상 및 표현과 유사한 방법이 쓰인 것은?

- ①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 ② 멀리 동해 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 널따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 ③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 길이 있다 /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 ④ 신새벽 뒷골목에 / 네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너무도 오래
- ⑤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 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 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 보리라.

03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물음의 형식으로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②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③ 화자의 의도와 반대되는 표현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상징성이 큰 소재를 사용하여 주제를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⑤ 시적 대상의 다양한 특징을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보여 주고 있다.

04 이 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와 ㉡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연	2연
'너'의 모습 (㉠)	'너'에 대한 '나'의 마음 (㉡)

- | | |
|------------|-------|
| ㉠ | ㉡ |
| ① 품성이 바름. | 시기함. |
| ② 마음이 따뜻함. | 시기함. |
| ③ 너그러움. | 좋아함. |
| ④ 오지랖이 넓음. | 좋아함. |
| ⑤ 귀가 얇음. | 못마땅함. |

100점 특강 Special lecture

이 시의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

1연에서 그리고 있는 것은 규칙을 잘 지키고 마음이 따뜻하고 넓으며 작고 사소한 것도 소중히 여기는 '너'의 모습이다. 바보와는 반대되는 모습인데, 화자는 이런 '너'를 바보라고 말하고 있다. 즉, 화자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너'의 바른 품성과 따뜻한 마음, 너그러움을 더욱 강조하여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2연에서 그런 '너'를 좋아하는 '나'의 마음을 질문하는 형식을 통해 고백하고 있다.

표면적 의미	반대	이면적 의미
너는 어리석은 바보다.	↔	너는 품성이 바르고 마음이 넓고 따뜻한 친구다.

반복을 통한 운율 형성

이 시에서는 '~는 너는 참 바보다.' 형태의 문장을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양반전 | 박지원

- **해제:** 이 글은 조선 후기 양반 계층의 무능력과 위선적인 삶을 소재로 하여 당시 사회의 양반 계층을 풍자하는 한문 소설이다. 양반 신분을 팔고 사는 과정을 통해 양반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주제:** 양반들의 무능과 위선적인 삶에 대한 비판과 풍자

내용 연구

등장인물의 성격

양반	어진 성품과 양반으로서의 예의범절을 중시하나 현실적으로 무능함.
↑	
양반의 아내	양반으로서의 도리보다 현실 대응 능력을 중시함.

구절 풀이

- 이 양반은 어질고 ~ 인사를 드렸다.: 양반이 어진 성품과 예의범절을 중시하는 전형적인 양반으로서의 면모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한 푼어치의 ~ 그놈의 양반!: 현실적으로 무능력한 양반 신분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양반이 아니므로 ~ 기어가야 한다.: 평민인 부자의 입을 통해 평민 계층이 겪어야 하는 불평등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낱말 풀이

- * **환곡:** 백성들에게 봄에 곡식을 꾸어 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거두어들이는 제도.
- * **감사:** 관찰사. 조선 시대 각 도의 으뜸 벼슬.

(가) 양반이라는 말은 선비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 '양반'이라는 말의 의미

(나) 강원도 정선군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다. 이 양반은 어질고 글 읽기를 좋아하여, 군수가 새로 부임할 때마다 몸소 그 집을 찾아가 인사를 드렸다. 그런데 이 양반은 가난하여 해마다 관청의 ^{풍자, 비판의 대상} 환곡(還穀)을 꾸어다 먹었다. 그 빚을 갚지 못하고 해마다 쌓여서 천 섬에 이르렀다. ^{양반의 바람직한 인물됨} ^{사건의 발단, 양반의 경제적 무능력함} 한 양반이 나라에서 꾸어 먹은 곡식이 에 이른다.

(다) 강원도 ^{*}감사가 정선 고을을 돌아보다가 정선에 이르러 환곡 장부를 조사하고 크게 노했다.

“어떤 놈의 양반이 나라의 곡식을 이토록 축냈단 말이나?”

감사는 그 양반을 잡아 가두라고 명했다. 군수는 그 양반이 가난해서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을 딱하게 여겨 차마 가두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군수도 양반의 빚을 해결할 방법은 없었다.

양반은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밤낮으로 울기만 하였다. 그의 아내가 양반을 몰아붙였다. “당신은 평소에 글 읽기만 좋아하더니 환곡을 갚는 데는 소용이 없구려. 쫓쫓, 양반이 아니……. ^{양반의 무능력함} 한 푼어치의 값도 안 되는 ^{양반의 무능력함 비판} 그놈의 양반!” ^{양반 신분 자체에 대한 부정} ▶ 양반이 을/를 갚지 못해 옥에 갇힐 처지가 되자 그의 부인이 비난함.

(라) 그때 그 마을에 사는 부자가 그 양반의 소문을 듣고 가족과 의논하였다.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늘 귀한 대접을 받고, 우리는 아무리 잘살아도 항상 ①천한 대접을 받는다. ^{신분 상승을 꿈꾸는 평민, 당대의 신흥 세력} 양반이 아니므로 말이 있어도 말을 타지 못한다. 또 양반만 보면 굶질거리며 제대로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뜰아래 ^{신분에 따른 행동의 제약} 엎드려 절해야 하고, 코를 땅에 박고 무릎으로 기어가야 한다. 우리 신세가 가엾지 않느냐? 지금 저 양반이 환곡을 갚지 못해서 아주 난처하다고 한다. 그 형편으로는 도저히 양반의 신분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의 양반을 사서 양반 신분으로 살아 보자.” ^{시대적 상황 - 양반 신분을 사고파는 시대}

부자는 곧 양반을 찾아가 환곡을 대신 갚아 주겠다고 청하였다. 양반은 크게 기뻐하며 승낙하였다. ①부자는 즉시 관청에 가서 양반 대신 환곡을 갚았다.

▶ 부자가 양반의 환곡을 대신 갚아 주고 을/를 사고자 함.

01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 ② 중심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 ③ 서술자는 전지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 ④ 사회 상황에 대한 작가의 비판 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 ⑤ 인물의 내면적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02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당시 사회의 모습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묶은 것은?

◀ 보기 ▶

ㄱ. 여성의 지위가 남자보다 높았다.
 ㄴ. 신분을 돈으로 사고팔 수 있었다.
 ㄷ. 가난한 사람에게 곡식을 빌려 주는 제도가 있었다.
 ㄹ. 백성에 대한 관청의 횡포가 심하였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03 (나)~(라)에서 알 수 있는 '양반'에 대한 작가의 평가로 적절한 것은?

- ①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인물이다.
- ② 사회 제도를 잘 모르는 인물이다.
- ③ 현실 대응 능력이 부족한 인물이다.
- ④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인물이다.
- 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나눔을 실천하는 인물이다.

04 (다)로 볼 때, '그의 아내'의 역할로 적절한 것은?

- ① 양반인 남편을 변호하고 지지하고 있다.
- ② 양반의 무능력한 모습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 ③ 양반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을 지적하고 있다.
- ④ 양반 사회의 비인간적인 냉정함을 꼬집고 있다.
- ⑤ 양반 신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05 ㉠의 구체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양반을 보면 굶실거려야 한다.
- ② 양반 앞에 엎드려 절해야 한다.
- ③ 말이 있어도 말을 타지 못한다.
- ④ 양반의 환곡을 대신 갚아야 한다.
- ⑤ 양반 앞에서 숨소리도 조심해야 한다.

06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이 글에서 ㉡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 보기 ▶

조선 후기에는 신분 상승, 족보 매매·위조 등을 통해 양반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상민의 수는 줄어들게 된다. 이는 당시 신분 제도의 모순을 알면서도 제도의 개혁보다는 신분 상승에 대한 개인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사람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 조건 ▶

- 당대 사회에 대한 작가의 태도가 드러나도록 쓸 것.
- 한 문장으로 쓸 것.

100점 특강 Special lecture

○ 작품의 배경이 된 시대적 상황

양반과 평민으로 신분이 나뉘었음.	→	신분 차별 존재
환곡 제도가 있었음.	→	가난 구제 제도 존재
평민 부자가 등장했음.	→	새로운 계층의 등장
돈으로 양반 신분을 살 수 있었음.	→	신분 제도의 동요

조선 후기, 신분 질서가 무너지고
지배 계층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나던 사회

⇒ 이 작품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 지배 계층의 위선적인 모습에 대한 비판 의식이 싹트고, 동시에 부를 축적한 평민이나 중인 세력이 돈으로 신분 상승을 꾀하여, 신분 질서가 혼란을 겪게 되던 조선 후기의 사회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내용 연구

• '부자'의 인물됨

신분 차별에 대한 비판 의식이 있으면서도 맹목적인 신분 상승 욕구를 지닌 인물

• 양반 매매 증서

- 군수가 양반 신분 매매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함.
- 양반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는 장치

구절 풀이

• 그런데 뜻밖에 ~ 쳐다보지도 못하였다.: 양반이 평민 신분 에 맞는 복장과 예법으로 군수를 맞이함을 의미한다.

• 매일 새벽에 ~ 써야 한다.: 양반이 학문에 매진하되 실생활과 무관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손에 돈을 ~ 빨지 말아야 한다.: 양반이 실리보다는 체통이나 겉치레를 중시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나열하고 있다.

날말 풀이

* 병거자: 주로 병졸이나 하인이 쓰던, 털로 겹고 두껍게 만든 모자.

* 잠방아: 옛날에 흔히 농사꾼들이 일할 때 입던 반바지.

* 소인: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일컫던 말.

* 결불: 얻어 찌는 불.

* 좌수: 조선 시대 지방의 자치기구인 향청의 우두머리.

* 별감: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 조사나 감독 등의 목적으로 지방에 보내던 임시 벼슬.

(가) 군수는 양반이 천 섬이나 되는 환곡을 모두 갚자 몹시 놀랐다. 군수는 환곡을 갚게 된 사정을 알아보려고 양반을 찾아갔다. * 그런데 뜻밖에 양반이 * 병거자에 * 잠방이를 입고, 길에 옆드려 * 소인(小人), 소인' 하며 자신을 낮추지 않는가? 그뿐만 아니라 양반은 감히 군수를 쳐다보지도 못하였다. 군수가 깜짝 놀라 양반을 붙들고 물었다.

“그대는 어째서 이런 짓을 하시오?”

양반은 더욱 벌벌 떨면서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아뢰었다.

“황송하옵니다. 소인은 제 몸뚱이를 낮추려는 것이 아닙니다. 환곡을 갚느라고 이미 양반을 팔았으니, 이제는 이 마을의 부자가 양반입니다. 소인이 어찌 다시 양반 행세를 하겠습니까?”

양반 신분을 팔았기 때문에 평민으로서의 행동을 취함.
신분 매매가 이루어짐. → 신분 질서가 무너짐.

▶ 양반이 행세를 하며 자신을 낮춤.

(나) 군수는 관청으로 돌아와서, 고을의 양반과 농사꾼, 장인(匠人), 장사치들까지 모조리 불러 모았다. 그리고 부자를 높은 자리에 앉히고 양반을 낮은 자리에 세워 두고는 다음과 같이 증서를 작성하였다.

양반 대접을 함.

▶ 군수가 을/를 만들.

(다) 건륭(乾隆) 10년(1745년, 영조 21년) 9월에 이 증서를 만드노라.

이 문서는 천 섬으로 양반을 사고팔아서 환곡을 갚은 것을 증명한다.

양반이란 여러 가지로 일컬어진다. 글을 읽으면 선비라 하고, 벼슬을 하면 대부(大夫)라 하고, 덕이 뛰어나면 군자라고 한다. 무관은 서쪽에 늘어서고 문관은 동쪽에 늘어서는데, 이것이 바로 양반이다. 따라서 선비, 대부, 군자, 무관, 문관 가운데에서 좋을 대로 부르면 된다.

양반이라는 말의 의미

① 더러운 일을 딱 끊고, 옛사람을 본받고, 높은 뜻을 가져야 한다. * 매일 새벽에 일어나 등잔을 켜고서, 눈은 가만히 코끝을 내려 보고 발꿈치는 궁둥이에 모으고 앉아, 얼음 위에 박 밀 듯이 『동래박의(東萊博議)』를 줄줄 외워야 한다. 배고픔과 추위를 참고 견디며, 가난 타령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중략> 『고문진보(古文眞寶)』나 『당시품휘(唐詩品彙)』를 깨알같이 베껴 쓰되, 한 줄에 백 자를 써야 한다.

관념적이고 비생산적인 학문, 현실과 무관한 학문

② * 손에 돈을 쥐지 말고, 쌀값을 묻지 말고, 더워도 버선을 벗지 말고, 맨상투로 밥상에 앉지 말고, 밥보다 국을 먼저 먹지 말고, 물을 후루룩 마시지 말고, 젓가락으로 방아를 찢지 말고, 생파를 먹지 말고, 막걸리를 들이켠 다음 수염을 주욱 빨지 말고, 담배를 피울 때에는 불이 움푹 패도록 빨지 말아야 한다.

* 허례허식, 질리를 얻지 못하는 행동 방식

화가 난다고 아내를 때리지 말고, 그릇을 내던지지 말고, 아이들에게 주먹질을 하지 말고, 죽으라고 중놈을 야단치지 말아야 한다. 소와 말을 꾸짖되 그것을 판 주인까지 싸잡아 욕하지 말고, 아파도 무당을 부르지 말고, 제사 지낼 때 증을 부르지 말고, 추위도 화로에 * 결불을 쪼지 말고, 말할 때 입에서 침을 튀기지 말고, 소 잡는 일을 하지 말고, 돈으로 노름을 하지 말아야 한다.

허례허식, 겉치레 중시

이러한 사항을 어기면, 이 증서를 토대로 관청에서 ㉔ 양반의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다.

정선 군수가 서명하고, * 좌수(座首)와 * 별감(別監)이 증인으로서 서명함.

▶ 양반이 지켜야 할 와/과 의무 - 허례허식, 비생산성

07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당대의 사회상이 아닌 것은?

- ① 경제적으로 어려운 양반들도 있었다.
- ② 신분에 따라 복장이나 행동 방식을 다르게 했다.
- ③ 문반과 무반 사이에 엄격한 경계와 차별이 있었다.
- ④ 양반에게는 지켜야 할 엄격한 생활 규칙이 있었다.
- ⑤ 특정 문제에 대해 관공서의 증서를 통해 증명하기도 했다.

중요

08 (다)의 표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을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확대하여 웃음을 유발한다.
- ② 눈으로 보거나 마음으로 느끼는 대상을 그림 그리듯이 설명한다.
- ③ 겉으로는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말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진리를 나타낸다.
- ④ 대상을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그것과 비슷한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한다.
- ⑤ 나타내고자 하는 것과 반대의 표현을 사용하여 본래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09 (다)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양반이 지켜야 할 도리
- ② 양반이 되기까지의 과정
- ③ 양반 우대를 위한 사회 제도
- ④ 양반이 존경받아야 하는 이유
- ⑤ 양반에게 부여하는 각종 혜택

10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더울 때 버선을 벗는 것
- ② 밥보다 국을 먼저 먹는 것
- ③ 말할 때 입에서 침을 튀기는 것
- ④ 배고픔과 추위를 참고 견디는 것
- ⑤ 아플 때 무당을 불러서 치료 받는 것

11 ㉡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 ① 돈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
- ②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 ③ 생계를 이어 가는 일을 중시해야 한다.
- ④ 항상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아야 한다.
- ⑤ 물질적인 문제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12 이 글로 보아 ㉢을 판단하는 기준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문장을 찾아 쓰시오.

100점 특강 Special lecture

첫 번째 매매 증서를 통해 풍자하는 '양반'의 모습

양반의 덕목과 의무	
• 이른 새벽에 일어나 바른 자세로 학문에 정진함. • 무조건 외우고 정해진 대로 베껴 쓰며 공부함.	• 개인적인 괴로움을 겉으로 드러내지 말아야 함. •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함.
관념적, 현실과 무관한 학문	겉치레, 허례허식

⇒ 부자에게 양반이 지켜야 하는 도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비생산적 계층으로서의 양반의 부정적 측면을 풍자하고 있다.

내용 연구
'군수'의 역할

표면적	양반과 부자의 신분 매매 조정
이면적	부자의 신분 상승 포기 유도 → 신분 상승 욕구 비판

구절 풀이

- 그 소리는 ~ 것 같았다.: 많은 사람이 여러 군데 도장을 찍어 여러 사람이 증인으로 나섰음을 의미한다.
- 하늘이 백성을 ~ 곧 양반이다.: 엄격한 신분 제도를 바탕으로 양반 신분의 우월함을 강조하고 있다.
- 문과의 홍패는 ~ 돈 자루다.: '홍패'는 양반 신분을 상징하는 것으로, 양반으로서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릴 수 있음을 '돈 자루'에 비유하여 강조하고 있다.

날말 풀이

- * 호장: 조선 시대 관아의 벼슬아치 밑에서 일을 보던 사람 중 우두머리.
- * 진사: 조선 시대 과거의 예비 시험인 소과의 복시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준 칭호.
- * 홍패: 과거의 문과 두 번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성적, 등급, 성명을 붉은색 종이에 먹으로 적어 주던 증서.
- * 음관: 과거를 거치지 않고 조상의 공덕에 의해 맡은 벼슬.
- * 설령출: 사람을 부르기 위해 처마 같은 곳에 달아 놓은 방울을 울릴 때 당기는 줄.

(가) 이에 관청의 하인(下人)이 탁탁 도장을 찍는데, 그 소리는 마치 북을 치는 것 같고, 찍어 놓은 모양은 하늘에 별이 펼쳐진 것 같았다.

* 호장(戶長)이 증서를 다 읽고 나자, ㉠ 부자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참이나 멍하니 있다가 말하였다.

“양반이라는 게 겨우 요것뿐입니까? 저는 양반이 신선 같다고 들었는데, 정말 이렇다면 너무 재미가 없는걸요. ^{양반 신분의 특권 의식에 대한 비유}원하옵건대 제게 이익이 되도록 문서를 고쳐 주십시오.”
^{부자의 질리 추구}

▶ 증서에 대한 부자의

(나) 그래서 문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 ^{양반 상징 - 양반 계층의 횡포}하늘이 백성을 낳을 때 넷으로 구분하였다. 네 가지 백성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 선비이니, 이는 곧 양반이다. 양반의 이익은 막대하다. ^{무위도식(無爲徒食)}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는다. 글만 대충 읽어도 크게 되면 문과(文科)에 급제하고, 작아도 ^{양반 상징 - 양반 계층의 횡포}진사(進士)가 된다.

● 문과의 ^{양반 상징 - 양반 계층의 횡포}홍패(紅牌)는 팔뚝만 하지만, 여기에 온갖 물건이 갖추어져 있으니, 그야말로 돈 자루다. 서른에야 진사가 되어 첫 벼슬을 얻더라도, 오히려 이름난 ^{양반 상징 - 양반 계층의 횡포}음관(陰官)이 되어 높은 벼슬자리에 오를 수 있다. 언제나 종들이 양산을 받쳐 주므로 귀멸이 희어지고, ^{양반 상징 - 양반 계층의 횡포}설령 줄만 당기면 종들이 ‘예!’ 하므로 뱃살이 처진다. 방에서는 귀걸이로 치장한 기생과 노닥거리고, 뜰에서는 남아도는 곡식으로 학(鶴)을 기른다.

벼슬을 아니하고 시골에 묻혀 살더라도 모든 일을 제멋대로 할 수 있다. ^{백성들에 대한 수탈}강제로 이웃의 소를 끌어다 먼저 자기 땅을 갈고, 마을의 일꾼을 잡아다 먼저 자기 논을 갈고, 누가 감히 나에게 대들겠느냐? 네놈들 코에 찻물을 들이붓고, 머리끄덩이를 잡아 휘휘 돌리고, 수염을 다 뽑아도 누가 감히 나를 원망하겠느냐?

▶ 양반의 을/를 중심으로 다시 매매 증서를 작성함.

(다) 부자는 증서 내용을 듣고 있다가 혀를 내둘렀다.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참으로 망랑하구먼.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부자는 머리를 흔들면서 떠나 버렸다. 그리고는 ^{양반에 대한 비난}죽을 때까지 다시는 양반이 되고 싶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 양반 신분을 하는 부자

13 이 글의 주된 서술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상과 관련된 일반적 상식에 대해 근거를 들어 증명하고 있다.
- ②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③ 대상과 상반되는 상황을 제시하여 교훈적인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④ 대상의 전체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대상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재치 있는 말로 웃음을 유발하여 대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유도하고 있다.

14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된 대상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가장 잘 드러낸 말을 찾아 한 단어로 쓰시오.

15 이 글에 드러난 '부자'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표현할 줄 안다.
- ② 자신의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 ③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계산적으로 따져 보고 있다.
- ④ 다른 사람에 대한 횡포를 나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⑤ 사회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현실을 도피하여 살고자 한다.

16 ㉠에서 드러나는 '부자'의 심리로 적절한 것은?

- ① 두려움 ② 민망함 ③ 실망감
- ④ 긴장감 ⑤ 굴욕감

17 ㉡에 담겨 있는 가치관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사람의 신분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 ② 사람은 신분에 따라 능력을 발휘한다.
- ③ 신분 제도는 사회 질서를 지키는 일이다.
- ④ 자신의 능력에 따라 신분을 달리할 수 있다.
- ⑤ 신분은 개인의 출생과 무관하게 정해질 수 있다.

서술형 ✖ 중요

18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나)에서 찾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 보기 ●

'풍자'는 대체로 권위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하여 그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다. 대상에 대해 과장이나 왜곡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과 달리 풍자는 인물의 권위의 부당성을 밝히고 공격하려는 의도가 담긴다.

● 조건 ●

- 어떤 인물을 대상으로 어떤 점을 공격하는지 쓸 것.
- 한 문장으로 쓸 것.

100점 특강 Special lecture

○ 두 번째 매매 증서를 통해 풍자하는 '양반'의 모습

양반의 특권	
• 공부를 대충 하고도 벼슬에 오르는 길이 열려 있음. • 흥패만 가지면 호의호식할 수 있음.	• 평민들의 재산과 노동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음. • 평민들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할 수 있음.
⋮	⋮
부당한 혜택	백성들에 대한 수탈

⇒ 가장 고귀한 신분으로 어진 성품과 학문으로 존경을 받아야 하지만 부당한 특권을 누리며 횡포를 일삼는 타락한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 '군수'의 역할

